

LX플랫폼이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1.15) >

◆ 'K구글어스'라더니...공기관도 외면하는 정부 3D맵

- 정밀도가 떨어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3D 공간정보 시스템('LX플랫폼')이 전국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

□ LX플랫폼이 '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(1~3차, '21~'23)'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-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'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'에서는 지자체가 LX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, LX 플랫폼 구축 시에도 민간도 참여하여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.
- 24개의 시범사업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LX 플랫폼*을 선택하였으며, 기사에 언급된 청주시의 경우에는 LX 플랫폼이 아닌 민간 플랫폼을 적용하였습니다.

* (민간플랫폼) 인천광역시, 청주시, 서초구 등 14개, (LX플랫폼) 충청남도, 진천군, 아산시 등 10개

□ 현재 제공되는 3D 데이터는 신산업에 활용하기에 정밀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,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고정밀 3D 데이터를 별도 구축하여 LX플랫폼에 탑재 하였습니다.

- 또한, 우리부에서는 향후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고정밀 3D공간정보를 구축(항공 LiDAR, 드론 촬영 등 활용)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	책임자	과 장	안수진	(044-201-3469)
		담당자	사무관	이인원	(044-201-3470)
	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	책임자	과 장	김형수	(031-210-2604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호	(031-210-2670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